

INDONESIA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바탐 강재모, 김지연

선교사의 2021년 11월 선교 편지

성탄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교회는 벌써부터 분주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성탄 예배가 전면 금지 되었는데 올해는 11월 말부터 내년 1월 초까지 대부분의 교회와 학교

등에서 성탄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으로 더욱 침체되고 많은 이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는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임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에서 복귀 한 이후에 많은 설교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 교회의 위생 환경이 각각 다른데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2. 선교 편지 # 페이스 북을 통하여 나누었던 사역들을 사진과 함께 나눕니다.

만약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옆의 사진 맨 왼쪽이 첫째 딸, 두 번째는 둘째 아들, 세 번째가 어머니, 네 번째는 에벤에셀 선생님)

몇 일을. . . 아니 몇 주간을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과 가정 심방을 갔습니다. 무허가촌에서 주변의 집들이 허물어지고 한 두 집씩 떠나가는 상황에 외롭게 남겨진 학생의 사는 집. . . 판자로 지은 당장 허물어 질것 같은 집에 아빠는 아파서 전혀 일을 못 하고 병 명도 모른채 계속 약해져만 가고. . . 엄마는 생계를 위해 집을 떠나 일하며 몇 주에 한 번씩 겨우 집에 오고. .



첫째 딸인 고등학생은 아픈 아빠와 아직 어린 다섯 동생을 돌봐야하는 상황, 작년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비가 없어서 중단 할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후원자가 연결되어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은 없지만,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학교를 못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공부할 의욕이 없는 건지..

“나 라면 어쩌면. . . 이 여고생처럼 학교를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공부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이적 그만 둘 건지, 대답하라는 선생님의 물음에 담담히 작은 소리로 그만 하겠다는데, 나만 당황스러운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옆에 있는 엄마라도 딸에게 권면을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도 본인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지 얼굴만 붉게 변하며 당황해할 뿐이다. 괜히 가정심방까지 온 건지. . 주님께 마음속으로 기도 할 뿐이다.

다행한 것은 작년에는 학교에 나오지 않던 중학생인 남동생은 오히려 학교는 계속 나오고 싶다고 대답한다. 작년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 둔다고 해서 억지로 우리 학교로 전학시켜 겨우 겨우 학교생활을 이어오게 했는데. . .

누나와 함께 동생이 학교 올 때 타던 낡은 오토바이도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수리해서 탈수도 없다고 한다. 나 같아도 중학생 시절 이런 상황이라면. 학교와 공부가 마음에 있었을까?

그냥 최소한의 수업 일수라도 채워서 졸업이라도 해 준다면 이들이 대견하고 고맙겠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 .

학교 사역은 좋은 학교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학생들에게 공부 하고픈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한줄 알았는데. . 그냥 학교에 나와 주는 것만도 고맙고 대견하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 .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 . 아니 이 땅의 가정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 .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제대로 일어 설수도 없는 극단적 벼랑 끝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 .

그렇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가정에 빛으로 찾아 오시길 기도 합니다

감사한 인도네시아 교회의 돌봄. . .

(1) 약 3년 전 고등학교 남학생 가정의 모친상으로 심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무허가촌의 집에 학생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지만 일을 하러 가고 남학생만 기다리고 있었던 기억, 집 앞에 조그만 호수가 있었습니다.

바탐은 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으러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데 지역 경제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환경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몸이 아프면 당장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계도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전 방문 하였던 남학생은 무사히 졸업을 하였는데 남동생이 얼마 전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학비를 제대로 못 내고, 가정형편이 많이 어려워 이웃집의 도움으로 겨우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에 방문을 해보아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도 전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 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고, 예전에 살던 집은 이미 너무 낡아서 무너져 거주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이웃 분이 세를 받던 집을 무료로 살게 해준 것 입니다. 아빠는 바탐에 더 이상 일거리가 없어서 막내 4째를 데리고 시골로 돌아가고 남자 형제 3명이 이웃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데 3째가 우리 학교를 다니는 상태입니다.

첫째는 졸업을 하였지만 학비를 다 내지 못 하여 졸업장을 찾아 가지 못 했는데 일단 나중에 납부하기로 하고 졸업장을 찾아 직장을 구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둘째는 고등학교를 중단하고 일을 하고 있고 셋째가 겨우 형들의 도움으로 학업을 하고 있는데, 참 대견한 마음이 듭니다. 엄마의 부재 가운데 지난 3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정말 반듯하게 성인으로 자라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들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도록 이웃들이 도와주었는데, 그분들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 .



(2) 약 5개월 전 청소년 소그룹을 통해 알게 되고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자녀 같아서 돌봐준거라고 합니다. 먹을 것도 나누고 오토바이가 필요 할 때는 빌려주기도하고.

이웃들의 형편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허가 지역에 슬레트 지붕, 돌봐준 인도네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역별 작은 셀모임을 통해 특히 청소년들을 돌보는 현지 교회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학생들에게 조금 더 사랑으로, 관심으로,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 .

오전에 신입생 모집 회의를 교장선생님들과 하면서 기대만큼 준비되지 않아서 속상했는데. . . 심방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참 귀한 분들. . . 자신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더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분들을 보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교사의 날>을 맞이하여 감사와 축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해요”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코로나 가운데 두 배로 수고하신 에벤에셀 선생님께 감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초등, 중등, 유치원, 고등 교장 선생님들 (왼쪽부터)



2021년 11월, 12월 기도 제목 <1억 원의 1회 현금보다 1일 1분의 기도가 더 큰 힘이 됩니다. >

1. 11월 25일부터 에벤에셀 학교 2022년 신학기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

- 목표 : 유치원 72명, 초등학교 1학년 105명, 중등학교 1학년 68명, 고등학교 1학년 40명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학비가 무료인 공립학교(대부분이 무슬림 교사로 학교 안에 이슬람 사원이 있음)로 아이들을 진학 시켜려 합니다.
- 학교도 최선을 다해 학비 장학금 지원을 통해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학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YAYASAN PRESBYTERIAN KOREA INDONESIA
SEKOLAH EBEN HAEZER
 TK-SD-SMP-SMK
 Alamat: Berhang Palapa I Blok C No. 11, Berhang - Batam

PENERIMAAN PESERTA DIDIK BARU
TAHUN AJARAN 2022/2023
GELOMBANG I BEBAS UANG PENGEMBANGAN
26 Nov. 2021 - 31 Des. 2021

URUTAN	TK	SD	SMP	SMK
1. Formule	Rp. 50.000	Rp. 50.000	Rp. 50.000	Rp. 50.000
2. Uang Pengembangan	FREE	FREE	FREE	FREE
3. Baju Seragam	Rp. 600.000	Rp. 1.100.000	Rp. 1.250.000	Rp. 1.400.000
4. SPP Bulan Juli	Rp. 200.000	Rp. 200.000	Rp. 250.000	Rp. 350.000
5. Lain-lain	Rp. 900.000	-	-	-
JUMLAH	Rp. 1.750.000	Rp. 1.350.000	Rp. 1.550.000	Rp. 1.800.000

FASILITAS

- ✓ Gedung yang besar.
- ✓ Halaman dan Lapangan yang cukup
- ✓ Aula full mask
- ✓ Guru yang profesional
- ✓ Laboratorium Komputer
- ✓ Perpustakaan

Uang muka cukup Rp. 250.000, (sisa bisa dicicil 1 tahun)

Tersedia beasiswa bagi Siswa Berprestasi dan Siswa kurang mampu

INFORMASI HUBUNG:

2.. 2022년을 준비하며 <에벤에셀 학교 도서관 도서 구입>과 <빈민지역 어린이 집 시작>을 위하여

-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각 3곳의 도서관에 좋은 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1권 1만원의 후원 프로그램을 위하여 - 1차 목표 1천권)
- 부모가 함께 일을 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빈민지역의 방치된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집을 빈민지역에 열고자 합니다. 적합한 장소와 교사 그리고 운영비가 준비되도록

3. 11월/ 12월 현지 인도네시아 교회 설교와 성탄 예배를 위하여

- 11월 21일 GPMI 띠반 (림롯 목사님) /28일 GBI 스피릿달서 주일 (마짓 목사님)
- 28일 벵콩 클리닉 연합 성탄 예배 설교 - 12월 4일 탄중 운창 유치원 성탄 예배/
- 5일 GPIA 교회 (모낭 목사님)/ 12월 GPI (심볼론 목사님)/ 15일 에벤에셀 고등학교 성탄
- 16일 에벤에셀 중학교 성탄 /19일GPMI (헤즈기아 목사님)/ 26일 탄중운창 교회 (로벳 목사님)

4. 에벤 에셀 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가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연결하여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위하여

- 저희 학교의 학비는 매월 초등생의 경우 약 2만원, 중등생은 약2만 5천원, 고등생은 약3만 5천원 입니다 (현재 약 150명의 학생들에게 매월 약 300여만원의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 12월 6일부터 성탄을 앞두고 어려운 가정 심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매년 12월에 진행하였는데 코로나 가운데 안전과 약 100가정 (150여명의 학생)을 심방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재정(1가정 당 약 1만 5천원의 생필품 선물 준비)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선정 된 가정은 무허가촌 가정, 편부모 가정 또는 친척에 사는 아이들, 고아원 등입니다.

아이디: kangjaemo1004

kangjaemo@hanmail.net

후원계좌 + 혹시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우리은행 1002-730-785647 (예금주 강재모) : 인도네시아(YPKI) 선교재단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증

KEB하나은행 010-0406394-177 (GMS강재모/김지연) : 한국 기관 (GMS-총회선교회)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